

국제한국사학회 특별강연  
2010년 8월 28일 오후 3시-4시  
한국의외대 일반대학원 4층 BRICS 국제포럼장

## 한민족 형성과 동아시아

심재훈 (단국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2007년 8월 19일 한국의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 극복을 권유했다.<sup>1)</sup> 이 뉴스를 접한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겠지만 상당수가 의아함과 함께 불쾌감까지 느꼈을지도 모른다. 보통 한국인이라면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생각할 때 단군과 반만년 역사,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세기 출간된 『삼국유사』에서야 최초로 등장하는 단군을 과연 역사적 실재라고 볼 수 있을까?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인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현재 지구상에서 한국 외에 스스로를 단일민족 국가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단일민족설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구체적 질문을 접할 때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국사 교과서나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은연중에 한국인들에게 주입된 한민족의 장구한 단일 뿌리 의식은 과연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한민족 기원과 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 혹은 동아시아 초기 문명의 다원성 이론이 한민족 형성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은 이러한 의문점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 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민족 형성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민족”이라는 개념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2. 한민족 개념의 모호성

한국의 국정 국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민족 혹은 한민족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민족을 단군 이래의 혈연공동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족은 대체로 “언어,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 경제생활과 문화, 동류로서의 공속의식(共屬意識)을 공통으로 가지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집단”(『두산백과사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족이 인종이나 종족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민족이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982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9825.html)

의 전문가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특정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상상의 공동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sup>2)</sup>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의 토대를 제공해온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어떤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까?

일단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면 앞의 “한”이 고대의 삼한(三韓)에서 유래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李瀾, 1681-1763)의 “삼한정통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sup>3)</sup> 1897년 고종(高宗)의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최초로 국호로 차용되었다. 이어 1919년 상해(上海)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를 채택하였고,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시 이를 계승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역시 같은 해 한반도의 북쪽에 세워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에서는 “한”이라는 명칭 대신 “조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민족”이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사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민족(民族)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서양에서 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던 18-19세기 민족주의(nationalism)가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어 19세기 중엽 서양 문물의 수입을 선도하던 일본 학자들이 "nation"이나 "ethnic group"을 “민족”으로 번역함으로써 민족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후 중국 양계초(梁啓超, 1873-1929) 등의 저술을 통해 19세기 말부터 보급되다가,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신채호(1880-1936)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sup>4)</sup> 사실상 국내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민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당시 신채호나 정인보(1893-1950)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민족의 원류로 삼한보다 고조선을 주목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스스로를 “한민족”이 아닌 “조선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조합은 사실상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주로 사용되어온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앤더슨이 주장하듯 “한민족” 역시 20세기 후반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염원했던 한국(남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난 세기 한국의 발전에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이 끼친 지대한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최근에 창출된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운 가변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멀리 신석기시대에까지도 소급시켜 추구하는 한민족의 기원이나 형성 문제 탐구는 시작부터 일정한 한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후반부 남한에서 조성된 한민족이라는 제한적 개념을 수천 년 이전의 불확실한 조상들에까지 적용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sup>5)</sup>

2)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3) 李佑成,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역사 파악에 있어서 체계성과 현실성」, 『역사학보』 31 (1966), pp.174-179; 韓永愚, 「18세기 전반 南人 李瀾의 史論과 韓國史 理解」,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일지사, 1989), pp.203-207.

4) 韓永愚, 「韓末 申采浩의 民族主義史論」, 『韓國民族主義歷史學』 (一潮閣, 1994), pp.39-84.

5) 따라서 이선복은 “민족기원 연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화석인골 연구와 한민족의 기원」, 『한국사시민강좌』 32 [2003], pp.62-67).

그러므로 현재 국내 학계에서 한민족의 형성 시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음이 일면 당연한데, 그 견해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시기로 나뉜다.<sup>6)</sup>

- (1) 기원전 10세기 무렵이나 그 이전: 예(濊), 맥(貊), 한(韓)족의 등장과 함께
- (2) 통일신라기: 최초의 통일 국가 출현으로 영역과 언어, 문화, 주민 확립
- (3) 근대 이후: 개항 이후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 결집

(3)은 민족이 근대적 개념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1)과 (2)는 민족이라는 용어 자체는 근대 이후 도입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민족에 해당하는 실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고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 글의 성격 상 (3)의 경우는 논외로 치고 주로 (1)과 (2)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민족 개념의 모호성만큼이나 우리의 연구를 어렵게 하는 다른 중요한 문제, 즉 한국고대사 관련 자료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한민족 기원과 형성 관련 자료의 한계

한민족의 원류 구명을 위해서는 대체로 문헌과 고고학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일단 문헌 자료에 관한 한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랜 문헌으로 12세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13세기의 『삼국유사』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신화와 전설을 수록한 『삼국유사』가 상고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랜 문헌자료이다.

그러나 신화나 전설에 역사의 잔상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척 조심스럽다.<sup>7)</sup> 그러한 좋은 실례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이른바 단군신화일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반만년 역사 인식의 토대가 된 단군 기년(紀年) 문제, 즉 단군왕검의 개국 연대 한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고조선”조에는 단군왕검이 중국의 요(堯) 임금에 즉위한 지 50년 후에 조선을 개국했다고 전한다. 바로 이 기록이 우리가 단기(檀紀)라고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의 근거가 되었는데, 요의 즉위 연대를 토대로 얻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요 임금은 중국 전설상 시조 중의 하나로 중국 학계에서도 그 실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은 기원전 1세기에 펴낸 『사기』(史記)에서 기원전 841년 이전의 연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음을 천명한바 있다. 최근 중국에서 사마천이 포기했던 고대의 연대 체계를 세우려고 추진한 대형 학술 프로젝트인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에서도 요의 시대는 논의의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에서 하나라와 상나라 전기, 즉 기원전 1300년 이전의 연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략적 틀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sup>8)</sup>

6) 盧泰敦,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논총』 1 (1991), pp.10-11.

7) 최근 출간된 김선자의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책세상, 2007)에는 중국인들이 시조로 받드는 황제 신화가 역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원리를 한국의 단군신화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대 중국학자들이 요가 실존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측한 요 즉위 연대를 토대로 한 단군의 개국연대 2333년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의 기년 문제를 비롯한 단군 관련 기사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단군을 자신들의 시조로 인식했다는 것을 전해줄 뿐이지 그 인식의 정당성까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sup>9)</sup>

이렇듯 한국에 남겨진 상고사 관련 문헌자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오래되고 많은 기록이 남겨진 중국측 문헌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상고사 부분에 관한 중국측 기록 역시 단편적인 경우가 많을 뿐더러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한다.

고고학 자료 역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20세기 후반 만주지역과 한반도의 고고학 성과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만주)에서 각기 진행된 고고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아직 초보적 상황이다. 즉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고고학적 체계가 아직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고학 자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다른 문제는 고고학적 문화 요소의 분포와 정치체나 민족 분포와의 상관관계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같은 문화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동일한 족속의 분포 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가장 좋은 실례가 국사 교과서에서도 나타나듯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 토기의 분포 지역을 고조선의 강역과 일치시키려는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고고학적 문화요소의 유사성을 토대로 특정 집단을 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나의 고고학 문화를 여러 종족이 공유한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같은 종족이라도 다른 양식의 문화를 발전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따라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한 문화 영역과 문헌에 나타나는 정치적 실체의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민족 개념의 모호성 못지않은 자료상의 한계 역시 한민족 형성에 대한 탐구가 지난한 작업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근래 동아시아 고고학 성과는 여러 지역에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과의 대조를 통해 한민족 원류의 실상에 조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4. 동아시아 초기 문명의 다양성

중국의 고대문명하면 누구라도 세계 4대문명의 하나로 알려진 황하(黃河)문명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문화전파론의 영향으로 중국 혹은 동아시아 고대문명은 황하 중류 유역에서 최초로 발흥하여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국의 방대한 고고학 성과는 황하 유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양한 신석기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심문화의 전파가 아닌 다양한 지역문화의 상호작용이 중국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이제 중국문명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인정받고 있는 이상 중국문명 혹은 동아시아의 대표 문명을 황하문명과 동일시하는 견해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의 중국 영역 내에서 발흥한 주

8)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 (2007).

9)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치림, 2002), pp.48-49.

10)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한민족의 계통」, 『한국사시민강좌』 32 (2003), pp.98-102.

목할 만한 초기문화(혹은 문명?)들과 함께 한반도와 일본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 (1) 황하 유역

1920년대 스웨덴의 지질학자 J. G. 앤더슨은 중국 하남성(河南省) 양소촌(仰韶村)에서 아시아의 채도와 유사한 채색도기를 발견했다. 근래까지도 중국 서쪽 섬서성(陝西省)의 반파(半坡)와 감숙성(甘肅省)의 마가요(馬家窯)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채도가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5000-3000년 사이에 발달했던 이 신석기 문화를 양소문화라고 부른다. 1930년대에는 또한 동부 산둥성(山東省)의 용산진(龍山鎮)에서 검은색 도기(흑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문화를 용산문화로 명명했다.

양소문화에 뒤이어 기원전 2500년 경 황하유역에서 광범위하게 발달한 다양한 용산문화 유적지들에서는 계층문화의 흔적과 함께 성곽, 초보적 문자, 예기(禮器) 등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용산문화의 발전이 황하문명의 주요한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sup>11)</sup> 용산문화에 뒤이어 하남성 언사현(偃師縣) 이리두(二里頭)에서는 거대한 궁궐터와 함께 다양한 청동예기, 옥기 등이 발견되었고, 중국학자들은 국가 수준에 걸맞은 이리두 유적지를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전설상의 하나라 도읍지로 추정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원전 15세기 무렵부터 황하 유역에서는 갑골문을 사용한 상(商) 왕조와 그 뒤를 이은 주(周) 왕조가 계속해서 발전했다. 문헌에 언급된 이들 왕조의 거대한 발전양상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 (2) 장강(長江, 양자강) 유역

장강 하류인 절강성(浙江省) 항주만(杭州灣) 인근에서 기원전 5000년 경 형성된 하모도(河姆渡)문화는 벼농사의 기원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벼농사의 흔적과 함께 다양한 농구와 상당 규모의 건축유지가 발견된 하모도문화는 장강 하류 지역이 황하와 다른 신석기문화권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일대는 마가병(馬家浜)문화와 송택(崧澤)문화를 거쳐 기원전 3000년 경 양저(良渚)문화라 일컬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발견되었다. 양저문화는 도기의 발전에 있어서는 용산문화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고도의 세련된 다양한 옥기들이 다량 발견되어 그 발전 수준만큼이나 황하유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장강 중류의 강한(江漢)평원에서도 다계(大溪)문화를 이어 기원전 3000년 경 굴가령(屈家嶺)문화가 형성되었다. 굴가령문화 역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문화 후반기와 이를 이은 석가하(石家河)문화 전기에는 거대한 성벽을 갖춘 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장강 상류 유역에서도 이에 버금하는 신석기문화가 발견되었고, 상 왕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천성(四川省) 삼성퇴(三星堆) 지역에서 상 왕실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청동기문화가 발전했다.

따라서 장강 유역 역시 황하 유역과 마찬가지로 상당 수준의 독자적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최근 중국학자들은 이 지역 문화를 묶어서 황하문명에 버금가는 “장강문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해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sup>13)</sup>

11) Shao Wangping, "The Longshan Period and Incipient Chinese Civilization,"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2.1-2 (2000), pp.196-226.

12) Li liu & Xingcan Chen 지음, 심재훈 옮김, 『중국 고대국가의 형성』 (학연문화사, 2006), pp.39-101.

13) 金秉駿, 「中國古代 “長江文明”의 재검토」, 『중국학보』 51 (2005), pp.179-202.

### (3) 요하(遼河) 유역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 즉 요하와 대능하(大凌河) 일대도 새로운 문명의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내몽고 동부와 요녕성(遼寧省) 서부에서 발전한 홍산(紅山)문화는 비슷한 시기 황하 중류의 양소문화와 대비된다.

홍산문화 유적지들에서는 기원전 5000년 무렵까지 소급되는 다양한 옥기들이 발굴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장식품으로 추정되는 홍산문화의 옥기들은 이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양저문화의 그것들만큼 섬세하지는 않지만 동북지역의 독창적 문화요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홍산문화의 대표적 유적지인 요녕성의 동산취(東山嘴)와 우하량(牛河梁)에서는 신전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건축물이 여신상들과 함께 발굴된 바 있다.

홍산문화는 황하유역의 청동기문화 맞먹는 하가점(下家店)상하층문화로 이어진다. 기원전 7-8세기까지 요하 서쪽에는 북방 초원지대의 유목적 성격이 강한 하가점상층문화가 존재했고, 같은 시기 대능하 유역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가 형성되어 점차 요동지방에까지 확산되었다. 최근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자들은 홍산-하가점으로 이어지는 지역 문화를 토대로 “요하문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놓고 있다.<sup>14)</sup>

중국에는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독특한 신석기문화들이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세 지역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장강과 요하 일대가 황하유역에 버금가는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명의 지위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긴 왕조들이 황하유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을 새로운 문명권으로 설정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다양한 각도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반도와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자.

### (4) 한국의 신석기와 청동기문화

한국의 신석기문화하면 대체로 빗살무늬토기를 떠올릴 것이다. 한반도의 중서부와 남부에서는 바닥이 둥근 토기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바닥이 평평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남부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덧무늬(용기문)토기가 주로 발견되었는데 두 토기문화의 연원이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sup>15)</sup>

기원전 2000년기부터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무문토기와 고인돌의 출현이었다. 대체로 고인돌의 출현을 청동기시대의 표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개시에 대해서는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제출되어 있다. 위에서 중국 동북지방의 특징적 청동기로 언급했던 비파형동검은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50여점 출토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부터 한국식 세형동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와 달리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 거대한 성벽과 같은 강력한 정치체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존재하는 고인돌의 거의 절반이 한반도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5) 일본 선사문화의 독특성

14) 우실하,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소나무, 2007); 김선자의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pp.435-466  
에는 중국 고고학자들의 요하문명 만들기 과정과 그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있다.

15)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한민족의 계통」, pp.91-95.

일본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른 토기문화가 발전했다.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죠몬 시대는 대표적 토기에 새겨진 새끼줄 문양(繩文, 죠몬)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규슈지방에서 발견된 최초의 죠몬토기는 아주 적고 부서지기 쉬운데 그 연대가 기원전 10750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뒤이어 기원전 10000-2500년까지로 추정되는 다양한 모양의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독특한 토기들이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죠몬시대 말기에는 토기의 모양이 주전자 모양으로 바뀌고 다리 달린 그릇들이 출현한다.<sup>16)</sup>

일본은 기원전 10세기 경 농경이 도입되어 죠몬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기원전 4세기경부터 청동기와 벼농사가 도입된 야요이(彌生)시대로 들어간다. 이때부터 한반도를 통해 중국 대륙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 5. 한민족 형성의 초보적 이해

1970년대 이래로 다양한 각도에서 한민족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연구 중 중요한 쟁점을 정리할 것인데 우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를 통한 분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유전자를 통한 분석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현생 인류가 지금부터 15만년 전쯤 아프리카에서 분화하여, 약 6-7만년 전에 아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4-5만년 전 여러 집단들이 각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며 유전적 변이와 함께 언어와 문화 등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전체 인류는 유전자의 99.8%를 공유하고 있어서 현대인 개체간의 유전정보(DNA)의 차이는 0.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sup>17)</sup>

그럼에도 최근 분자생물학 및 생물정보학적 분석 기법의 발달로 각각 모계 및 부계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mtDNA)와 Y염색체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국대학의 김욱 교수는 한국인 집단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mtDNA 분석을 통해 한민족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내놓았다.<sup>18)</sup>

우선 한국인 집단의 mtDNA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지만, 대체로 북방계의 mtDNA 그룹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동북부 시베리아 계통은 상당히 낮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방 기원으로 해석되는 mtDNA 계통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집단이 북방과 남방 계통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기원적 집단이라는 Y염색체 DNA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국인은 중국 한족(漢族)이나 베트남인들과는 계통이 다르고 중국 조선족과 만주족, 일본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일본인과 북중국인을 포함한 북아시아 사람들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Pearson, Richard, *Ancient Japan*, (Washington, D.C.: Arthur M. Sackler Gallery, 1992).

17) 한국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3), p.123.

18) 김욱, 김종열, 『미토콘드리아DNA 변이와 한국인 집단의 기원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5).

## (2) 외래기원설

한국인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초로 주목받은 견해는 시베리아 기원설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와 청동단추, 돌널무덤 등이 시베리아의 그것들과 유사한데서 출발했다. 나아가 시베리아 신석기문화의 담당자인 고아시아족이 곰 숭배사상을 지니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용녀를 곰 토템, 즉 곰 숭배의 상징으로 보아 한민족과 고아시아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주장했다.<sup>19)</sup>

그러나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도 무늬의 형태와 기형, 연대 등에 차이가 있어서 양자의 연계성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많다.<sup>20)</sup> 따라서 최근에는 중국 동북 기원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반도 출토 토기들과 청동검 등이 그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sup>21)</sup>

일부 학자들은 벼농사나 고인돌 등을 남방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남방기원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북방 경로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방민족의 도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sup>22)</sup>

사실 외래기원설을 추적하다 보면 앞의 유전자를 통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아프리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외래 이주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유사성을 집단의 이동 차원보다는 문화의 전파나 교류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3) 토착기원설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조선민족 단혈성기원론”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부터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화석인골을 토대로 구석기시대 이래로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00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평양은 인류 발생지 중의 하나이며, 구석기시대 후기에 현생인류가 나타나 “조선옛사람”의 원형을 이루었고, 고조선이 성립할 무렵 현대의 “조선민족”의 토대가 된 “고대조선족”이 이룩되었다는 것이다.<sup>23)</sup>

1980년대 말 세워진 이러한 도식적 체계는 1970년대 이래 정립된 주체사관에 토대를 둔 것으로 평양 지역을 민족의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994년 평양 인근의 거대한 단군릉 복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한민족의 형성에서 위에서 살펴본 외래적 요인을 부인할 수 없듯이 토착적 성격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같은 지나치게 과장된 도식화된 체계는 합리적 연구에 큰 장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4) 한민족 최초 국가에 대한 이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민족의 최초 국가로 고조선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조선에 대한 무수한 논문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제들

19) 정운용, 「한민족의 형성」, 『한국사』1 (한길사, 1994), pp.323-374.

20) 고아시아족과 퉁구스 기원론의 허실에 대해서는 李鮮馥, 「신석기, 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논총』 1 (1991), pp.50-61 참고.

21)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한민족의 계통」, pp.81-82.

22) 위의 글, pp.89-91.

23) 이선복, 「민족 단혈성기원론의 검토」, 역사학회 편, 『북한의 고대사 연구』 (일조각, 1991); 「화석인골 연구와 한민족의 기원」, pp.59-61.,



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조선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요서설과 요동설, 평양설(이동설)로 나뉘어 있는데<sup>24)</sup> 일단 기원전 3세기 연나라 장수 진개(秦開)의 침략을 받고 요동에서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학계의 주류인 듯하다. 그러나 『사기』 등의 중국 문헌에 당시 조선과 연의 경계가 되었다고 언급된 패수(貝水)의 위치에 대해 현재까지 한반도 서북과 중국 요녕성(遼寧省) 사이에 있는 7개의 강(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혼하渾河, 요하遼河, 대능하大凌河, 난하灤河) 모두가 후보지로 주장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고조선의 건국 혹은 존속 연대 역시 단군기년에 맞먹는 기원전 2000년 이전에서 기원전 4세기 경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국가 성격에 대해서도 비파형동검 출토 지역을 고조선의 범위로 간주하고 여러 소국들을 거느린 일종의 봉건국가였다는 견해에서 부족연맹체에 불과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견의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고조선에 대한 신빙성 있는 문헌기록의 부족이 일차적 원인일 것이다. 사실상 고조선 연구는 아주 단편적인 중국측 기록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둥 몇 개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에 다름 아닌 어려운 과제이다. 여기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세우고 싶어 하는 연구자들의 욕구와 독자들의 기대가 영성한 자료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낳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고조선이 멸망한지 300여년 이후부터 전통시대 중국학자들조차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이미 혼동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야 한다.<sup>25)</sup> 따라서 획기적인 관련 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연구 역시 지속되는 논쟁을 잠재울 수 없을 지도 모른다.

#### (5) 동이(東夷)와 예(濊), 맥(貊), 한(韓)에 대해서

일찍부터 중국 고대문헌에 나타나는 한민족의 원류로 동이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동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본 동쪽의 오랑캐를 의미하는 동이라는 개념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상(商, 혹은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사람들이 인식했던 동이는 현재 중국의 동쪽 해안 산둥성(山東省)의 이민족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진한(秦漢)시대 이후부터는 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본에 거주 하던 족속을 동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민족과 관련된 동이는 후자의 동이임을 알아야 한다.<sup>26)</sup>

이렇듯 동이라고 지칭되던 여러 집단 중에서 예, 맥, 한이 한민족의 원류를 구성한 족속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고구려와 부여 등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초기 국가들이 예와 맥에서 유래했고 삼한으로 지칭되던 한 역시 한민족의 주요한 구성성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쪽의 부여계 언어와 남쪽의 한 계통 언어의 동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묶는 데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6) 삼국과 통일신라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고 낙랑군, 대방군을 통해 한반도에 중국 문명이 본격적으

24) 吳江原, 「古朝鮮 위치 변동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1,2」, 『白山學報』 47 (1996), 48 (1997), pp.5-50, 55-107.

25) Jae-hoon Shim, "The Dilemma of Choson in Traditional Chinese Texts," *Journal of Asian History* 40.1 (2006), pp.31-47.

26) 李成珪, 「先秦 文獻에 보이는 '동이'의 성격」, 『한국고대사논총』 1 (1991), pp.97-143.

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때 고조선의 외곽 지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 융합이 진행되면서 각자 나름대로 민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이 서로 상쟁했듯이 과연 이들에게 동류의식 혹은 원초적 의미의 민족의식이 존재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삼국민을 아우르는 동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때부터 현재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실체의 원형이 태동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 6. 정리

지금까지 한민족 형성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약간은 장황하게 서술해 보았다. 연구자라면 누구나 독자들에게 명쾌한 논리로 자신의 의미를 전달시키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마쳐가고 있는 필자는 왠지 마뜩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 자신의 능력 부족이 일차적 원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의 처음 두 장에서 언급했듯이 “한민족 형성”이라는 주제 자체의 원초적 한계가 최소한의 변명이 되지 않을까 자위한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한민족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현재 한국인의 뿌리는 토착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고고학적이거나 유전적으로 북방계에 가깝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요하문명”이라는 아직은 설익은 개념이 일리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하문명=한민족의 고대문명”과 같은 과장된 등식은 물론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한민족의 선조로 인식되고 있는 예와 맥 등이 요하 문명권의 영향을 받은 정도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조선을 한국 최초의 국가로 상정할 수 있다면 이는 늦어도 기원전 4세기 경 중국 동북지역(요서나 요동)에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경 연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세력이 위축되었지만 기원전 2세기 위만의 찬탈 이후 한반도 서북부와 중국 동북부 일부를 아우르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기원전 108년 한 무제의 공략으로 멸망하고, 고조선의 고지에 세워진 한의 군현을 통해 한반도로 중국문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여러 소국들이 각축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으로 정립되었다. 이때부터 삼국의 경쟁을 통해 한국식 문화의 원류가 생성되었고 신라의 통일로 원초적 의미의 민족 개념과 상통할 수 있는 일체화의 단초가 열렸다.

## 7. 나가는 말: 단일민족 신화와 열린 민족주의

2007년 여름 국내에 번역 출간된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라는 책은 1895-1919년 사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인들이 “민족”을 발명하고 개념화 해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sup>27)</sup> 20세기 초 한국의 진보적 학자들을 통해 보급되기 시작한 민족 개념은 1948년 남북한 정부 수립을 계기로 각각 “한민족”과 “조선민족”이라는 크

27) 앙드레 슈미트/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초창기 선도적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민족과 달리 20세기 후반의 한민족과 조선민족 의식은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이 와중에 실상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단일민족과 반만년 역사라는 새로운 신화 탄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아가 이러한 만들어진 역사는 한민족 혹은 조선민족을 각각 하나로 이끄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세기 한반도의 군상들이 경험했던 지난한 역사 상황을 고려할 때 민족의식 고취를 통한 하나됨의 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난 세기의 노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인들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되었다. 한민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존한 상상된 과거의 영광에 열광하며 민족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받을 필요성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돌파 뉴스와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원천인 민족주의는 한국인들이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국제화와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UN의 단일민족의식 극복 권고를 쓴 약으로 생각하고 민족의 자존 의식은 고수하되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도발이 상존하는 한 우리의 역사 만들기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학문적 거리가 성큼 좁혀져버린 21세기에 어떤 목적성을 띤 학술 프로젝트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정당한 설자리를 찾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포함한 여러 공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역시 국제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구 성과를 차분히 집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사학지』 39집 (2007년)에 발표한 글이다.